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10.16 (통권270호)

경제 이슈

- 9월 미국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9월 수출감소율 한 자릿수로 축소

경영 노트

- GE의 '역(逆)혁신 전략'(Reverse Innovation)

사회 트렌드

- 녹색 신식민주의(Green Neocolonialism)
- 세너지(senergy)

차이나 리포트

- 제 2차 한중일 정상회담

저널 브리프

-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

洗心錄

- Stay Hungry. Stay Foolish!

□ 9월 미국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미국 노동부(15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소폭 상승
 - 상승률 둔화 : 9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0.2%로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0.4%보다 둔화되었고 이는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하였음을 나타냄
 - 상승률 둔화의 원인 : 식료품 가격이 0.1% 하락하고 주택임대료가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9월 소비자 물 상승폭이 억제되어 물가 안정세를 주도함

-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제로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9월 수출감소율 한 자릿수로 축소

- 관세청(14일)이 발표한 '2009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9월 수출감소율은 2008년 10월 이후, 수입감소율도 2009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
 - 수출감소폭 한 자릿수 기록 : 9월 수입은 29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3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
 - 9월 무역수지 흑자 및 교역액도 급증 :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30억 달러 급증한 47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고, 총교역액도 2008년 10월 이후 최대
 - 對일본과 중동 무역적자 지속 : 미국, EU 및 중국 수출은 수입보다 감소폭이 작아 총 47.5억 달러 흑자를 보인 반면, 일본과 중동에 대한 무역수지는 각각 23.8억 달러와 34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주요 경제지표 호전,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수출입 상승을 견인하면서 향후 수출입 규모가 계속 확대된다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구조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GE의 ‘역(逆)혁신 전략’(Reverse Innovation)*

- GE는 개발도상국 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제품을 선진국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역(逆)혁신 전략’을 구사
 - 일반적으로 선진국시장용 제품을 먼저 개발 후 후진국시장에는 현지에 맞게 변형하여 출시하는 전통적인 현지화 전략(Glocalization)과 배치됨
 - 하지만 GE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역(逆)혁신 전략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 (전통적 현지화 전략의 한계) 대부분의 선진 기업이 구사하는 현지화 전략을 위한 경제적 가설들이 실제로는 현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
 - 가설 1. ‘개발도상국 경제는 선진국의 과거를 거친다’ :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각종 사회 인프라 및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름
 - 가설 2. ‘개발도상국 대상의 제품은 선진국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낮은 가격과 신기술로 선진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 (사례) GE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하여 양국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음

< GE의 역(逆)혁신 전략 사례(초음파 의료기기) >

세 부 내 용	
1. 전통적 현지화 전략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는 1990년대 초반 미국 및 일본에서 개발한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를 2002년 중국 시장에 출시 · 복잡한 기능과 큰 부피에 대한 거부감으로 중국 시장 공략 실패
2. 개발도상국 시장용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GE의 중국 현지팀은 직접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노트북 기반의 휴대용 저가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매출 증가 · 2007년 더욱 낮은 가격의 모델을 출시하여 매출 급증
3. 선진국 시장 공략 (역(逆)혁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도 출시 · 기존 선진국용 기기의 10~30% 수준 가격 경쟁력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2008년의 매출액이 2002년 대비 70배의 성장하고 휴대용 초음파 진단 기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본 자료는 Harvard Business Review 10월호의 “How GE is disrupting itself”를 요약 정리함

□ 녹색 신식민주의(Green Neocolonialism)*

- 환경보호를 이유로 내걸어 저개발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을 제한하는 선진국의 행태를 과거 식민주의에 빗대어 ‘녹색 신식민주의’로 부름
 -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야자유 수입을 제한하는 유럽은 ‘녹색’이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말레이시아 링 켕야익 에너지·수자원·통신 부장관이 주장
 - 숲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유럽이 아시아산 바이오연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식민지시대를 연상케 하는 조치라는 것임
 - EU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월 바이오연료인 야자유 수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공포
- 켕야익 장관은 아시아 빈곤층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유럽의 무역장벽을 철회하라고 요구
 - 그는 “숲의 다양성은 자연림 보호를 통해 유지된다. 야자유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연림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유럽에서 바이오연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독일은 4%에 그친다.”고 반박

□ 세너지(senergy)**

- 최근 몇 년간 국내의 기업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수합병이나 계열사 간 합병이 대세
 - 하지만 최근엔 기업들 사이에서 ‘쫄개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소위 ‘세너지 경영’이 활발
 - separate(분리)와 energy(에너지)의 합성어로서, 결합보다는 분리를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함
 - 통합의 힘을 강조하는 ‘시너지(synergy)’와 대비되는 개념
-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분사 등이 새로운 경영 트렌드가 될 것임

* “녹색 신식민주의”(중앙일보 2009.10.13)

** “시너지 효과? 이젠 세너지 효과다”(조선일보 2009.10.08)

□ 제 2차 한중일 정상회담

■ 10월 10일 제 2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됨

-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 동안 ASEAN+3, EAS 등 틀 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독자적 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 작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를 의제로 채택
 - 한중일 3국은 2007년 11월 제 8차 정상회담에서 독자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매년 각국이 윤번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제 2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공동성명 발표

-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과거 10년 동안 3국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
 - (정치적 신뢰 향상) 고위층의 교류와 전략적 대화 강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 국방 분야와 군사인원의 교류 확대
 - (경제협력 강화) 무역, 투자, 금융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 현존하는 ASEAN, APEC 등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
 - (인문교류 활성화 촉진) 3국간 청소년, 대학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재난관리, 위생, 인적자원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경주
 - (국제문제 공조) 3국은 또한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에너지, 테러, 군축 및 UN 개혁 등 문제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
- 『한중일 지속가능발전 공동성명』: 한중일 3국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 각국 정부는 3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결의한 10대 협력과제를 비준하고, 2010년 제 12차 회의에서 「3국환경협력행동계획」의 제정 합의

- ‘한중일순환경제시범기지’ 건립을 논의
- 한중일 3국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전개
- 적당한 시기에 3국 수자원 관련 장관회의를 출범시켜 기후변화와 하천 및 수자원 종합관리에 대해 논의
- 산림자원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
-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3국 간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
- 3국은 ‘유엔기후변화공약’에 입각하여 코펜하겐 회의의 합의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격화를 우려*

- 한중일 협력관계의 미래 : 한중일 3국 협력관계에 대해 온라인 조사대상 인원 중 35.8%가 중대하고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
 - 단,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 침략사실 인정과 이에 합당한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
- 일본의 정책 지속성 : 일본의 저 한, 중 협력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8.2%만이 긍정, 부정적인 시각은 44.7%
 -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정권의 빈번한 교체로 인해 대한, 중 정책의 안정성이 크게 낮기 때문임
- 협력의 장애물 : 3국간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3.3%가 '영토, 영해분쟁'을, 22.6%는 '역사인식'이라고 답변
 -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영해 분쟁 중에 있음

* 10월 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온라인 조사결과

□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

■ 최근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관들이 고객의 일상적인 활동들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활동들을 통해 얻어지는 산출물을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셀프서비스와는 달리 고객이 모르게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음

<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업을 도와주는 고객들 >

사 례	내 용
전기(電氣) 생산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지하철역에서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형태가 일그러지면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을 바닥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함 • 영국 세인트버리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은 주차장 바닥에 물리적 발전기를 설치, 시간당 약 30KW의 전기를 생산함 • 네덜란드의 한 역사는 회전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연결하여 역사 내 전등을 밝히고 있음 • 아직 효율성이 낮아 매우 적은 양의 전력밖에 생산하지 못하지만,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안정적인 전기생산이 기대
고서(古書) 입력을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서에는 컴퓨터 광리더기로 읽지 못하는 글씨가 상당히 많아 이를 고객이 아래와 같이 대신 입력하는 방법을 개발 - 우선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 화면에서 고객에서 고문서에 담긴 문자나 숫자의 이미지를 제공함 - 그러면 고객은 제공된 이미지에 들어있는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게 되며, 이를 모아 최종적으로 고문서 전자화에 활용 • 이러한 방법으로 연간 15만 권에 달하는 고서가 완성되고 있으며, 이는 37,500명의 직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작업임
대학능력시험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학능력시험인 SAT시험의 약 10%는 채점되지 않는 문항들로, 이는 시험출제자가 향후 시험 출제에 앞서 문항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임 • 다만 학생들은 어느 문항이 채점되지 않는 문항인지 알 수 없어 시험시간의 약 10%를 출제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함

* “The Power of Unwitting Workers”(HRB, 2009.10) 참조

□ Stay Hungry. Stay Foolish!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애플사를 꼽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애플 컴퓨터에서부터 아이 시리즈(아이-포드, 아이-폰 등)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는 애플사를 언급하는 데 있어 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빼놓을 수 없다. 물론 그가 모든 성공한 애플사의 제품들을 혼자서 개발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 그의 통찰력과 결단에 힘입은 바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미국 주요 대학교의 졸업식장은 대학교 4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함을 축하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연사로 초빙된 명사들이 인생 경험과 이를 통해 발견한 교훈을 압축하여 전달해주는 장(場)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종종 그들이 남긴 졸업 축하 연설은 오랫동안 인터넷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연사가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남긴 경우보다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도 한다.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되었던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스탠포드 졸업식 초청연사로 참석한 것이 그가 대학교 졸업식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으로 말문을 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묘사하고 있다.

첫째, 그는 그가 다니던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던 것이 그의 성공에 있어 아쉽지만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를 중퇴한 후 그냥 발 가는 데로 강의실을 기웃거리다가 발견한 ‘서법(calligraphy)’ 강의의 청강을 통해 배운 글씨쓰기가 나중에 애플컴퓨터가 모니터에 표시하는 보기 좋은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둘째, 그는 현대 경영의 역사상 중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가 창업했던 애플사로부터 쫓겨났던 일이 오히려 득(得)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는 애플사를 나온 후 한 동안 실의에 빠졌었지만 이를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들 기회로 여기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인 NeXT와 Pixar를 창

업하여 100% 컴퓨터로 만든 만화영화인 ‘Toy Story’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던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애플사가 NeXT를 합병하면서 다시 애플사의 CEO로 복귀한 정말로 만화 같은 사건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그는 채장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삶의 가치와 삶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생은 소중하면서 짧기 때문에 이를 남의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인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연설을 그가 젊은 시절 인상 깊게 보았던 잡지 중간호의 표지를 장식했던 글귀인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미혼모였던 대학원생 친어머니로부터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 입양되었고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하고 크게 성공하였다 30살에 이로부터 쫓겨났다 다시 성공하여 결혼하고 원래의 회사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암을 비롯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의 인생은 기업가로서 아마도 더 이상 극적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매번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었던 그를 “인생지사 새옹지마(人生之事 塞翁之馬)”라는 옛말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는 운명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항상 갈구하며 항상 새로운 생각을 추구하였고(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것이 오늘날의 애플사와 스티브 잡스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은 간결하고 분명한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영어 원문으로 읽는 것도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다. Google에서 “steve jobs stanford commencement speech”를 치면 바로 연설문 원고를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화면상 바로 윗줄에서는 Youtube의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그가 연설하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

에머슨 (1803~1882) :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